



건물 낡아 비만오면 ‘줄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어떻게?

지난 19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2018 광주비엔날레’를 문화전당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어 주목 받았다. <광주일보 2017년 1월19일자 1면> 광주 지역 대표적인 두 문화예술기관이 손을 맞잡으며 비엔날레는 처음으로 용봉동 전시관을 벗어나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된 배경 이면에는 용봉동 전시관 노후화와 누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제11회 행사가 열리던 지난해 10월초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2·3·4관이 물이 쏘고 제9회 행사 중에도 전시관 내에 빗물이 떨어져 세숫대야를 놓는 등 비만 오면 직원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작품이 손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완공된지 20년이 넘으면서 낡은 건물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 국제적인 현대미술행사를 표방하는 비엔날레 위상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전시관을 관리하는 광주시립미술관측에서 매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누수 문제 등은 잡을 수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면 리모델링이

2018년 12회 행사는 문화전당에서 개최 을 디자인비엔날레 임시 보수 후 사용키로 재건축 비용 300억…광주시, 예산 문제 난색

나 재건축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 11회 행사가 끝난 직후 재단은 차기 행사 준비 TF팀을 운영하며 현 전시관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후화된 현 전시관에서 행사를 지속할 경우 전시작 피해가 우려된다

는 의견이다. 재단은 그동안 광주시에서 끊임없이 전시관 재건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한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1175억원)에 재건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거절당했다.

비엔날레 관계자는 “중외공원 활성화도 시킬 겸 기초자료 등을 준비해 광주시와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며 “일단 4년이 라는 시간을 벌었으니 다음 행사는 전당에서 개최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재건축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예산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고 안전문제가 있지는 않으니 전시관을 보수해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전당 내 지속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 2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 장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현재 광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전당이 지어질 당시부터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비엔날레 개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광주시와 재단 실무자간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단 전당에서 비엔날레를 연 후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며 행사 기간 비어있을 용봉동 전시관

활용 계획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올 가을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일~10월30일)를 열어야 하는 광주디자인센터 측은 용봉동 전시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디자인센터 역시 용봉동 전시관이 안전문제와 결부되지 않았고 비슷한 규모를 지닌 전시장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다.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애초 문화전당 내 개최도 모색했지만 문화창조원 등을 전시 성격에 맞게 바꾸는 방식은 많은 예산이 예상된다”며 “용봉동 전시관을 임시 보수 후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용봉동 전시관에 안전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관료를 지불하고 김대중센터 등 타 장소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전당 측에서는 비엔날레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아트페어가 열리며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이 방문한 만큼 비엔날레가 문화전당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야외광장을 비롯해 충장로·금남로 등 주변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희기자 kimyh@kwangju.co.kr

멋쟁이 독거노인 ... 박상희 동화 ‘이모티콘 할머니’

오늘날은 도시문화가 발달하면서 핵가족이 늘고 있다.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전통적 개념의 가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로 엮어낸 작품집이 나왔다. 광주전남

아동문학인회 백일장 대상과 해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상희 작가의 ‘이모티콘 할머니’(정개구리)는 조부모를 소재로 한 여섯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작품집은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와 전남문화예술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출간됐다.

표제작 ‘이모티콘 할머니’는 늦었지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찾아가는 할



머니를 소재로 한다. 할머니의 일상을 통해 할머니 또한 우리들과 다르지 않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 멋쟁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외로운 독거노인으로 밝혀진 ‘멋쟁이 할머니’, 편백나무 숲을 가꾸는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소재로 한 ‘자라나는 선물’ 등 훈훈

한 인간미와 정이 느껴지는 작품들도 수록돼 있다. 박 작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의 소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줄 수 있는 따뜻한 작품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장편 ‘아빠와 함께 떠나는 나주 여행’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블랙리스트 손배 청구…끝까지 싸우겠다”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좋은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소속단체들과 뜻을 모아 사회와 함께하는 민예총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광주민예총) 신임 회장에 추대된 한국화가 허달용(53·사진)씨는 “어깨가 무겁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민예총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허 신임회장은 1999년 광주·전남미술인 공동체 회장, 지난 2015년부터는 광주민족미술인협회를 이끌며 각종 사회운동에 앞장 섰다.

허 회장은 “2008년 민예총 회장을 할 당시에는 광우병 사태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며 “다시 회장직에 오를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이 똑같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그는 광주민예총 회장을 역임하며 고(故)백남기 농민 추모 작품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관료를 지불하고 김대중센터 등 타 장소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인권과 평화도시 광주에서 시국차원으로 활동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주에 신경을 못쓰는 상황이었습니



다. 시국선언전은 광주 미술인 답게 작품을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전시였습니다.”

허 회장은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민예총이 펼쳤던 세월호 관련 활동을 정리한 책자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월호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3년 동안 벌였던 지난(至難)한 싸움을 그림과 함께 소개할 생각이다.

또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민예총 총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이상 싸워야지요. 다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남길 생각입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는 “그동안 소속단체들이 따로 활동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회원이 화합을 해 더 쎈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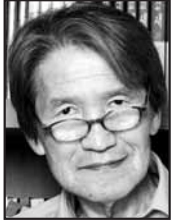
출판계 거목 박맹호 민음사 회장 별세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 출판계를 이끌어왔던 출판계 거목 박맹호(사진) 민음사 회장이 22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33년 충북 보은 비룡소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했다. 고인의 출생지 ‘비룡소’는 민음사의 아동·청소년 서적 브랜드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비룡소’는 지난해 광주 수완지구에서 지역민과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전문서점 ‘비룡소 책방’을 열기도 했다.

고인은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자유풍속’을 응모했지만 정부를 풍자한 내용이 문제로 돼 탈락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1966년 5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옥탑방에서 ‘울곧은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을 담은 민음사를 창립했다.

생전의 고인은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좋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출판의 모토를 뒀다. 특히 일본책 번역과 전집류 일색이었던 당시 출판계에서 단행본 기획과 신진 작가 발굴을 통해 출판의 수준을 견인하는 데 앞장섰다.



오늘날 당연하게 보이는 가로쓰기와 단행본 출판은 상당 부분 박 회장이 민음사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73년 ‘세계 시인선’을 처음 펴냈고 1974년에는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등 ‘오늘의 시인 총서’ 1차분 5권을 펴내 시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1976년에는 인문학계의 이론적 토양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의 문학’을 창간했으며 ‘오늘의 문학상’을 제정했다. 1981년에는 ‘김수영 문학상’을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또 ‘이데아 총서’를 통해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등을 소개했으며 1983년부터 1999년까지 424권에 이르는 ‘대우학술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고인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한국단행본출판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